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상 '흔들'

예전 공개하던 예산계수조정안 비공개로 전환
도의원간 폭행사건... 윤리특위선 조사도 외면
일반인 수준 질의 남발... 집행부 "공부 더 해야"

민선 8기 제주도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이 지난 4일 개원사를 통해 "연구·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의원들간의 경쟁·협력 속에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고 도민적 역할을 결집하는 의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으나 '헛구호'로 전락하고 있다.

지금까지 공개해 온 예산심사 계수조정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가 하면 새로운 변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제주의 미래를 만드는 각오로 끊임없이 배우고 공부해야 하지만 일부 초선의원들의 수준이하 질의가 남발하고 의회원의 품위를 손

상시키는 일까지 터져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각 상임위원회는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완료했다.

그러나 일부 상임위는 계수조정 내역이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합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예결위는 28일 제1회 추경안 계수조정을 마무리하고 의결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2선의 전직 도의원이 "상임위원 계수조정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왔다"면서 "밀실에서 의원들끼리 예산을 나누어 먹은 것이 아니라면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일부 초선 의원들의 부적절한 행동도 의회 권위를 실추시키고 있다.

최근 제주 시내 모식당에서 가진 도의원 회식자리에서 초선 A의원이 동료 초선 의원을 폭행하는 일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주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지만 제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다.

이달 열린 제주자치도 업무보고 자리에서는 한 초선 의원이 집행부를 향해 호통을 치고, 다른 초선 의원들은 이미 해결 방안이 제시된 현안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는 질의도 반복됐다.

한 공직자는 "의원들이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어느정도 현안을 학습해야 하는데 일반인 수준의 질의를 남발했다"면서 "예전에는 초선의원들이 밤 늦게까지 남아 공부하는 모습을 볼 수 없어 아쉽다"고 말했다. **고대모기자**



제13회 세계자연유산 거문오름 국제트레킹이 28일 개막, 내달 1일까지 닷새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행사 기간에는 사전예약 없이도 탐방안내소에서 출입증과 간단한 탐방 수칙을 교육받으면 용암길 등을 탐방할 수 있다. 사진은 하늘에서 내려다 본 거문오름 전경. **한라일보 DB**

거문오름 '비밀의 숲'이 열린다

28일부터 내달 1일까지 거문오름 국제트레킹 진행
사전예약 없이 탐방 가능... 미공개 용암길도 개방
가수 신효범 특별공연·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마련

세계자연유산의 속살을 닷새간 엿볼 수 있는 제주 거문오름 국제트레킹이 3년 만에 막을 올린다.

거문오름국제트레킹위원회가 주최·주관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후원하는 '제13회 세계자연유산 거문오름 국제트레킹'이 28일 개막, 다음달 1일까지 닷새 동안 진행된다.

2008년 이후 매년 열렸던 거문오름 국제트레킹은 2019년 12회 행사를 끝으로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열리지 못했다. 이 기간 동안 거문오름은 사전예약제와 주1회 '자연휴식일'을 운영해 탐방객을 제한했다.

하지만 이번 행사가 열리는 닷새 동안은 사전에 예약 없이 탐방안내소에서 출입증과 간단한 탐방 수칙

만 교육 받으면 신령스러운 공간에 발을 들여 놓을 수 있다. 다만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입장을 완료해야 하며, 취사행위와 산나물과 꽃, 나무 등 일체의 채집행위가 금지된다. 또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등산용 스틱은 사용할 수 없다.

행사 첫 날에는 오전 7시30분 기원제에 이어 오전 10시30분부터는 거문오름 풍물단 길놀이 공연, 개막식 및 홍보대사 위촉, 가수 신효범의 특별공연이 펼쳐진다. 아울러 행사 기간 내내 자연만화경 만들기(오전 9시~오후 3시), 천연 모기 퇴치제 만들기(오전 9시~오후 3시), 부상 예방을 위한 스포츠 테이핑(오전 8시30분~낮 12시)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은 물론 세계자연유산마을인 선홍2리가 준비한 특산

품과 먹거리도 체험할 수 있다. 행사의 첫 주말인 30일에는 오전 10시30분부터 선인분교 풍물공연, 가수 김나연과 제재의 노래가 울려 퍼진다. 다음날에도 오전 10시30분부터 오경실 한국무용단, 제주피인, 제주전통예술단·온새미로의 공연으로 탐방객들의 흥을 돋워줄 예정이다.

한편 행사 기간에는 태극길(분화구 내부와 정상부 능선을 따르는 순환코스·10km)과 용암길(거문오름에서 분출된 용암이 흘러내려간 구간·6km)을 걷는 탐방객들을 위해 순환버스가 운영된다. 구간은 까망고피 주차장에서 행사장이 있는 세계자연유산센터이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운행된다. 배차 간격은 평일 30분, 주말 20분이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정무 김희현·제주시 강병삼·서귀포시 이종우도, 민선8기 첫 정무부지사·행정시장 후보자 발표



김희현 정무부지사 내정자



강병삼 제주시장 내정자



이종우 서귀포시장 내정자

27일 발표했다. 김희현 정무부지사 지명자는 3선 도의원 출신으로 2010년부터 2022년까지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장,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위원장, 부의장 등 다양한 분야의 의정활동을 통해 쌓아온 전문성과 도민 소통 경험을 바탕으로 민선8기 도민 도정 구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도는 개방형직위 행정시장 임용 후보자 선발 결과도 발표했다. 제주시장은 강병삼 변호사, 서귀포시장은 이종우 전 남제주군 의원이 내정됐다.

제주시장은 강병삼 변호사, 서귀포시장은 이종우 전 남제주군 의원이 내정됐다.

도는 개방형직위 행정시장 임용

후보자 선발 결과도 발표했다. 제주시장은 강병삼 변호사, 서귀포시장은 이종우 전 남제주군의원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7월 20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선발시험위원회의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7월 26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천된 임용후보자 중 오 지사가 최종 후보자를 선정했다.

도는 정무부지사 및 행정시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도의회 인사 청문을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최종 임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도의회는 제주도에 인사청문 요청이 오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특위가 구성되면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거쳐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강대혜기자**

제주 코로나19 신규 1374
잠정집계 27일 <17시 기준> 누적 **26만4359**

책방 모다드렁 책방 이야기

「책방의 향기」강연

2022. 4. 23. 토 ~ 11. 19. 토 총 10회



“ 제주시민을 위한 동네책방지기들의 특색을 살린 강연 ”

행사기간 2022. 4. 23. (토) ~ 11. 19. (토) / 총 10회

장 소 우당도서관 북카페 (풍당)

대 상 강좌별 30명

일시	책방명	책방지기명	주제	일시	책방명	책방지기명	주제
4. 23. (토) 10:00~12:00	제주풍무질	은종복	제주도에는 왜 동네책방이 많은가	9. 17. (토) 10:00~12:00	보배책방	정보배	왜 책방에 가면 아이디어가 생길까?
4. 30. (토) 10:00~12:00	그리고서점	정현덕	책방지기로 살아가기	9. 24. (토) 10:00~12:00	책방	양유정	우리마을 책방 이야기
5. 21. (토) 10:00~12:00	오중독탄	김정희	제주어로 동시 짓는 동심	10. 15. (토) 10:00~12:00	카페동경	김효진	카페 창업과 커피 이야기
5. 28. (토) 10:00~12:00	시인의집	손세실리아	나의 심미안은 책으로부터 왔다	10. 22. (토) 10:00~12:00	한뼘책방	조은영	책을 파는 일과 읽는 일
6. 18. (토) 10:00~12:00	그림책방 & 카페노란우산	이진	책 읽어주기의 힘	11. 19. (토) 10:00~12:00	한뼘책방 동림당	송재용	한 책도 책이유다게 (어느 한뼘책방지기의 헌책 수집 이야기)

※ 상기 일정은 도서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참가자모집

모집기간 강연 10일 전

모집대상 강좌별 30명

접수방법 '책섬, 제주, 홈페이지(http://woodang.jeju.go.kr) ▶ 프로그램 ▶ 프로그램 사전신청 (선착순 사전 접수)